

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15년만에 돌아온 맥킨지 한국보고서 2

2013.06.20 | 이은경 | eundust@saesayon.org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3. 낯설지 않은 데자뷰
4. 음모론 아닌 음모론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맥킨지, 『Beyond Korean style :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보고서
(2013. 4.14)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진단이다.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모든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으며 원본과 내용을 구하는 발길이 바빴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진단은 새롭지 않다.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불안과 저성장 및 극복 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진단은 더욱 한심하다. 성장동력을 위한 규제완화만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새사연의 추천보고서는 그동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보고서를 다뤘으나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는 보고서로 맥킨지 한국보고서를 선정한다.

2. 우연이라하기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장면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2차 보고서

-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변곡점에 도달해 저성장의 덩어리에 걸렸다.
 -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실패하고, 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저생산성의 덩어리'에 빠졌다.

- 한국에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
 -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맥킨지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 과도한 주택 구입비, 자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및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주택구매자들이 제1금융권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연간 8.8조 원 이상 대출비용 경감 가능

- 서비스 부문 확대 및 강화
 - 보건의료산업, 금융서비스 산업, 관광산업 육성
 - 서비스 산업인 교육, 관광, 의료보건, 물류, 금융 등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충하고 확대시켜 나가야함
- 중소기업 부문 강화
 - 기업가 정신 부활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법 개혁

장면 2. KDI·맥킨지·SERI·골드만삭스 '창조경제' 공동구상

- KDI 주도...새 정부 필요한 '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안(머니투데이 5월 8일자 기사¹⁾)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정책비전 수립에 나섰다. KDI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이끌었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KDI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중장기 비전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연구소와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KDI는 이 작업에 맥킨지와 삼성경제연구소(SERI),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등을 협업 파트너로 정했다

장면 3. 쏟아지는 저성장 우려와 규제완화 요구들

- 한국경제연구원_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²⁾
 - 1분기 저성장과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성장률이 1.9%까지 낮아질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성장률 1%p 하락(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전망치 2.9% →1.9%) 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 소득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논의 등으로 투자심리회복이 지연되면서 3%대의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의 논의가 기업투자심리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608572885715>

2)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3월'

-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조속한 논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추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재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5월 2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

- 5월 2일 전경련은 정홍원 총리와의 만찬 직전에 열린 회장단 회의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을 희망했다.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자체가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 4월 15일 ‘2013년 제1차 정책 세미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새 정부가 밝힌 올해 2%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받아들이기엔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먼 데도 경제 민주화에 집착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논쟁이 ‘투자과 소비’를 얼어붙게 했다”며 “정치논쟁이 성장을 걷어찬 것”, “경제 민주화는 ‘우리는 아이에게 젖을 주겠다.’는 식”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걷어차고 국민의 국가에 의 의존을 타성화시키고 있다.”

장면 4. 정부의 화답

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_5월 1일 현오석 부총리

○ 투자부진은 경기적 요인,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성장세 지속에 따라 기업 투자에 비우호적 여건이 조성

- 중소기업의 경우 저금리에도 자금사정은 오히려 악화
- 위기국면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
- 입지·환경 등 투자와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상존

○ 대책

- (입지해소 해소) 공장증설 부지 확보 지원 : 산단내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산단내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협의
- (산단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토지임대차 제한 개선 :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는 산단 부지만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지배구조 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개선 :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

- (입지·환경 규제 개선)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 : 산업단지 내에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6월)하고, 열병합발전소에 LNG 이외의 연료(예: 유연탄)도 허용
- (관광규제 개선)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 의료관광객 숙박시설(가칭: 메디텔)을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하여 건립 근거를 마련(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6월)
- (입지·환경규제) 풍력발전 입지 규제 개선 : 진행 중인 14개 단지는 가이드라인 제정이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조속히 결정

②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5월 31일 보험사 지원방안 발표

- 자산운용 규제 완화,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금융감독당국이 자본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저금리·저성장·고령화 3중고에 빠진 보험사의 위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상품을 개발했던 보험사들은 저 성장과 고령화로 되돌려줘야 할 보험료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반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막대한 자산을 굴릴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14개 건의사항 일부를 받아들였다.(서울경제 4월 28일 기사)³⁾

③ 의료관광 U-Health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법개정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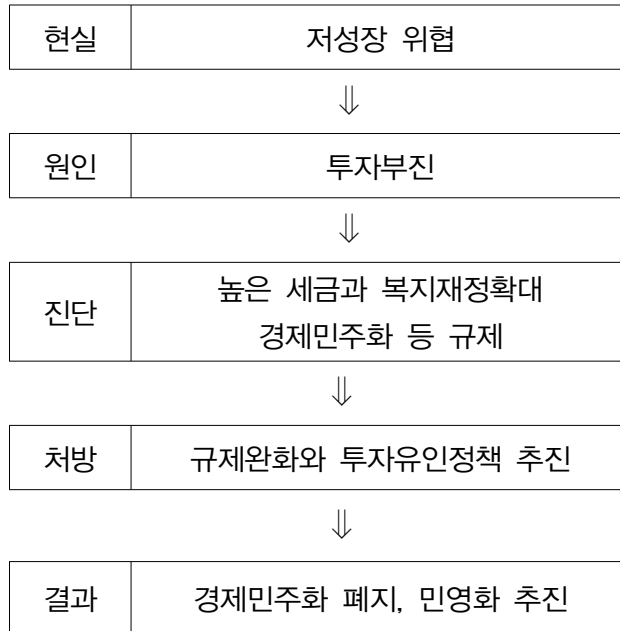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메디텔 허용)
 -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대상에 보험회사 포함
 - 외국인에 대한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로 제한
 - 보험회사는 관련 유치활동을 할 수 없는 현재 조항의 삭제
- 심재철의원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의료인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 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304/e20130428180217117450.htm>

단서 신설).

3. 낯설지 않은 데자뷰

정리해보자. 정확히 상황은 아래와 같은 구도로 표현된다.



이러한 구도는 낯설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맥킨지 보고서가 제안했던 내용을 보자.

■ 한국 재창조Reinventing Korea 맥킨지 한국 보고서

- 21C를 위한 생산성 주도의 성장 -

핵심은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 요구

[표 1] 한국 재창조Reinventing Korea 맥킨지 한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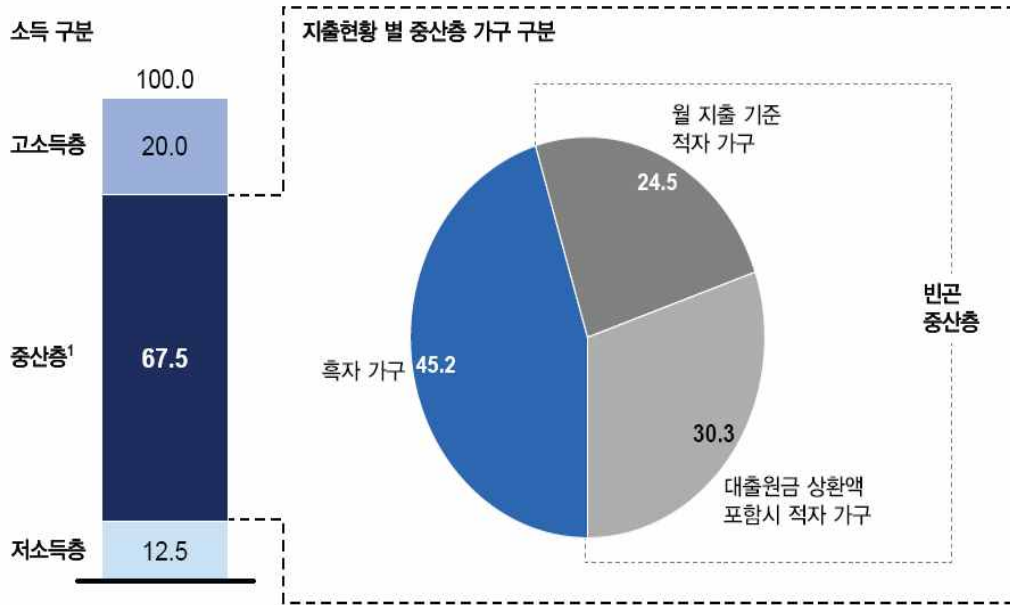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 장애요인 제거	○ 규제완화 철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관련 규제 완화 - 직간접 FDI 관련 규제 제거 -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 자본 시장 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운영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 우량은행 중심의 통폐합 촉진, 은행 지배구조

		개혁 - 증권시장 및 연금시장 개혁
	○ 시장 친화적인 사회 정책	- 최저 임금 수준 인상 대안으로서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지원
세계 초일류 경영방식 습득	기업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개혁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설정 - 선진 이사회 제도 도입 • 실질적 사외 이사제도 실현 • 최고경영층 보수 장기성과와 연계 • 이사회 운영체제 확립 - 기초실과 CFO 기능 혁신
	사업 포트폴리오 개혁	
	초일류 경영 능력 확보	
	서비스 부문 신사업 기회 포착	
	세계 초일류 기업과 제휴	
금융 개혁	정부	- 금융위기 관리 전담 정부 자문기구 설립 - 부실 부담 원칙 설정 - 선진 부실 처리 기법 습득
	금융 기관	-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과 위기관리팀 즉시 구축 - 우량/부실 채권 분리/관리 - 3년 목표 M&A 계획 수립 - 핵심 역량 강화 - 선진 금융기관 국내시장 진입 및 비금융 기관의 금융시장 진출 대비

이는 정확히 IMF의 권고와 이후 한국 정부가 수행했던 규제개혁과 일치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비할 수 없이 증가했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심각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낙수 효과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고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광범위한 소규모 자영업은 빈곤으로 떨어지는 전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2013년 판 맥킨지 보고서는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끓은 물속에 잠긴 개구리와 같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림 1] 지출현황 별 중산층 가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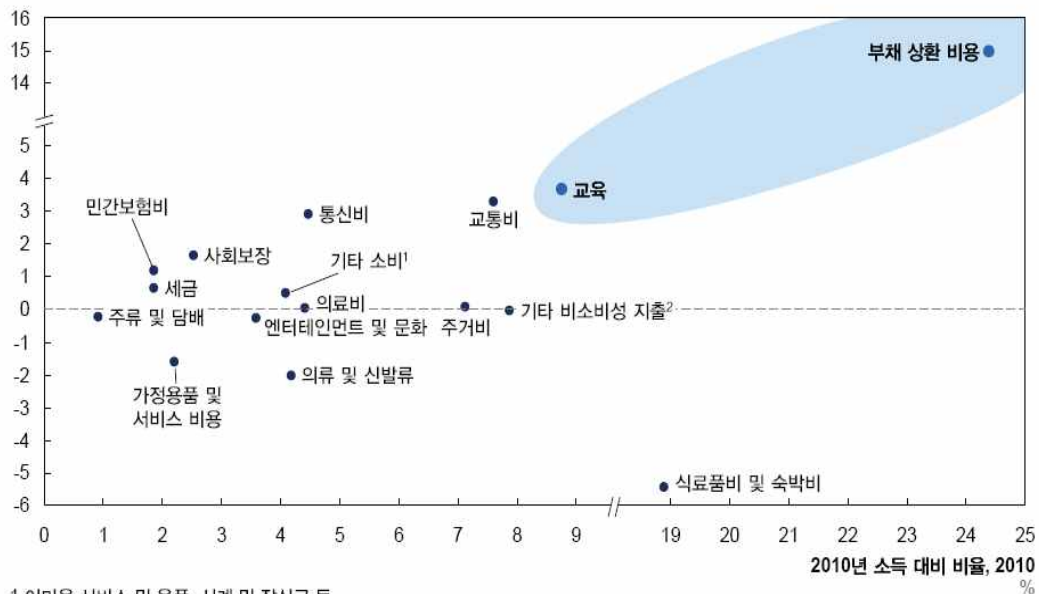
1 중간 소득 값의 50~150%.

자료: 통계청,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분석

[그림 2] 부채상환에 치우친 한국 가구 지출

소득분위 상위 40-60% 표본 대상

소득 대비 비율의 증감, 1990-2010
% 포인트



1 이미용 서비스 및 용품, 시계 및 장신구 등.

2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자료: 통계청,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분석

하지만 처방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LTV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인 교육, 관광, 의료보건, 물류, 금융 등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혁파, 기업이 정신 부활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법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부유층이 요구하는 정책이며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4. 음모론 아닌 음모론

국가의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관료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회전문 인사”로 불리는 전문가-행정관료-이익집단의 공고한 카르텔이다. 미국 주류경제학에 지적 토대를 두고 상위 계층에 속해있는 그룹들이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고위 행정직-기업집단-국회, 정부의 요직을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고 정책결정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맥킨지 그룹과 같은 글로벌 컨설팅 그룹, 세계 유수의 대학교수들이 정책결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통계와 현란한 그래픽 속에 담겨진 정책 주장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다.

기업이나 정부도 골치 아픈 구조조정 계획안을 만들 때 맥킨지 같은 컨설팅회사의 이름을 빌어 방패막이로 삼고 수십, 수백억씩을 낸다. 당시 구조조정을 맡았던 한 기업체 임원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이름으로 경영진이 원하는 방안의 보고서를 만들면 노조와 같은 반대세력을 누르기도 쉽고, '말빨'이 섰다"고 털어놓는다. 서구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치렀다는 반성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15년 만에 다시 보는 맥킨지의 '공포마케팅'_머니투데이 4월 15일자 기사 4)


조장된 공포감과 맥킨지의 명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지난 10여 년간 맥킨지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컨설팅비용을 챙겼다. 얼마 전에는 인천공항 매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로 인천공항 민영화의 스피커역할을 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의뢰해 논란이 됐던 맥킨지 연구 용역 보고서는 공항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30%를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이다.

음모론은 별 다른게 아니다. 소수 몇 명이 인류의 모든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헐리웃

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41511445604035&VRT>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개발, 이슈화, 공포마케팅, 전문가 보고서가 실제 정책 집행을 이끌어내고 우리 삶의 물을 바꾸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세계 굴지 연구소의 보고서와 국제기구의 강제에 가까운 권고,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는, 아니 이를 이용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회전문 정책 결정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지지하며 경제민주화 정책 폐지와 민영화, 규제철폐를 지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선 된지 7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며 발표되고 있는 국정과제들은 대선시기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정책은 창조경제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치우쳐져 있다. 이 글에서 맥킨지 보고서를 추천하지 않는 보고서로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2013년 6월 2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3/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최정은
추천 보고서	3/6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김수현
추천 보고서	3/14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김병권
추천 보고서	3/20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이은경
추천 보고서	4/4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김수현
추천 보고서	4/8	금융위기의 대안 신용 협동조합	이수연
추천 보고서	4/19	2020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이수연
추천보고서	5/6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이은경
추천보고서	5/10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 인가?	최정은
추천보고서	5/16	권력 유지의 기술	여경훈
추천보고서	5/26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김수현
추천보고서	6/20	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이은경